

SK그룹 사회적 가치 창출

그룹 ICT전문가 총집결... 시너지 극대화 '결실'

SKT TEB 컨퍼런스

우수활동·연구 과제 성과 발표
멤버 100명에 물적·인적 지원
"5G 시대 경쟁력 위해 협력·공유"

SK텔레콤은 13일 인천 중구 소재 SK무의연수원에서 SK그룹 관계사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뉴 ICT 분야의 기술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SKT TEB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EB(테크 엑스퍼트 보드)'는 SK텔레콤의 사내 ICT 분야 우수 전문가 집단이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TEB 멤버 100여명에게 직무 전문 역량 개발, 학습 커뮤니티 등 물



SKT TEB 컨퍼런스

적·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SKT TEB 컨퍼런스'는 이번 행사에 TEB 멤버 외에도 SK그룹 내 IC

T 전문가 100여 명을 대거 초대해 뉴 ICT 기술 공유 및 국내외 ICT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TEB 구성원들은 울

해 우수 활동을 공유하고 연구 과제 성과를 발표한다. 데이터 기반 법률 서비스, 미디어 개인화 추천 등 뉴 ICT 기술을 SK텔레콤의 상품과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ICT 업계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갖는다. 주요 연사로 웰컴 코리아의 박성은 박사가 '5G 에코시스템과 사용자 경험'을 주제로 발표하고,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선우명호 교수가 자율주행차 및 미래 교통산업에 대해 발표한다.

또 최근 ICT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캐터랩 김준원 대표와 자율주행 드론 스타트업 니어스랩의 최재혁 대표가 각각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와 자율주행 드론 설

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TEB 멤버들은 사내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줬다. 한 해 동안 국내외 컨퍼런스에서 32건의 발표 및 기술 전시를 하고 5G 상품·서비스 관련 39건의 특허를 등록하는 한편, IT 분야 세계 최대 학술단체인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를 비롯해 국내외 우수 저널에 통신 기술 관련 기고를 게재했다.

SK텔레콤 문연희 기업문화센터장은 "5G 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과 공유를 통한 기술 생태계 활성화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SK그룹 ICT 전문가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협력사·사회적 기업 66개사 한자리에... '좋은 일자리' 마련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

참가사 사전면접예약 시스템 운영
해당 기업 문화·세부정보 소개
AI 활용 자기소개서 컨설팅 마련

SK가 우수협력사에는 고급 인력을,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SK는 오는 19일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관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SK 주요 관계



지난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8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구직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가 추천하는 우수 협력사와 사회적 기업 66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직종과

직무 인력을 채용한다. 참가사들은 사전면접예약 시스템

을 운영해 참가자 면접 기회를 늘렸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문화와 세부 정보도 소개한다.

행사장에서는 기업별 인사 담당자가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면접까지 진행한다. 구직자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전략 세미나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도 마련했다.

사회적 기업 홍보 부스도 준비했다. 우수 인재들이 사회적 기업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행사는 29일 울산으로 이어진다.

문수월드컵컨벤션센터에서 울산지역 SK 관계사 24개가 참여한다. 채용상담 부스와 취업 특강, 협력사 CEO 간담회 등도 이어진다.

한편 SK는 2005년 '행복동반자 경영' 선언 이후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2006년부터는 협력사 역량강화 교육과정인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2009년에는 협력사들이 사업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를 발족했으며, 지난해에는 1~3차 협력사간 현금결제 지원하기 위한 '현금결제지원펀드'도 신설했다.

/김재용 기자 juk@

HDR10+ 스트리밍 업체 왓차에도 적용

(차세대 영상 표준)

삼성전자 장면에 밝기·명암비 최적화

삼성전자는 왓차에서도 콘텐츠에 HDR10+를 적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HDR10+ 차세대 영상 표준이다. 각 장면마다 밝기와 명암비를 최적화해 영상의 입체감을 높여 주고 정확한 색 표현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완벽한 화질 경험을 제공한다.



왓차도 HDR10+ 기술을 도입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HDR10+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연합을 결성해 10월 말까지 90개 이상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알뜰폰에 '월 150GB' 대용량 LTE 요금제 나온다

LGU+ 이번 주부터 요금제 출시
월 정액 6만9000원, 일 5GB 제공

월 데이터 150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롱텀에볼루션(LTE) 알뜰폰 요금제가 나온다.

LG유플러스는 통신업계 최초로 하루 5GB씩 매달 150GB의 대용량 LTE 데이터를 제공하는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이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전산 개발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LTE망을 임대하고 있는 20여개 알뜰폰 중 요금제 출시를 원하는 사업자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대용량 LTE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우선 6개 알뜰폰 사업자가 이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알뜰폰 요금제는 LG유플러스의 LTE 핵심 요금제 중 하나인 '추가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69'를



통신 판매점에서 고객이 알뜰폰 가입 상담을 받고 있다. /LG유플러스

바탕으로 구성했다. 이 요금제는 월정액 6만9000원에 일 5GB씩 월 150GB(30일 기준)의 LTE 데이터를 제공하고 소진 시에도 5메가비피에스(Mbps)속도로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 역시 무제한이다.

통상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사로부터 회선 사용료를 40%~50%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 제공받고, 소비자에게 20~30%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고려하면 추가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69와 동일한 혜택을 4만원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정액형 선불 요금제도 이달 중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선불 요금제는 '정액선불 11GB+', '정액선불 11GB(국제)+' 2종이다.

하루 2GB씩 60GB(30일 기준)와 추가 제공 데이터 11GB를 매월 제공한다. 데이터 소진 시에도 3Mbps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음성과 문자는 기본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전략 요금상품의 알뜰폰 출시 지원이 MVNO 사업자들의 수익 개선과 가입자 확보 및 유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LTE33, 추가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44 등 고객 수요가 많은 기본료 3만~4만원대 저가 요금상품을 알뜰폰을 통해 선보였다. /김나인 기자

LG전자, 씽큐 서비스 국가 150개로 확대

LG전자가 가전 관리 앱 '씽큐' 서비스 국가를 150여개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씽큐는 LG전자의 가전관리 앱이다. 지난 9월 업계 최초로 구글 어시스턴트 기반 음성인식을 추가했으며, 지난달부

터는 스토어에서 소모품과 액세서리 주문까지 시작했다. 가전을 등록하면 스스로 필터 교체시점을 알려주는 기능도 탑재했다. 연동되는 가전제품도 지난해 20종에서 올 연말까지 24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